

지역 소식통

부안군의회, 임시회 완료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지난 23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 부안군의회 기본조례 등 30건을 의결하고 11일간의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부안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해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한 군민의 안전과 민생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지출을 내놓으며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했다.

의원별 대표적 내용으로는 장은아 의원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이태근 의원 '2021년 예산운영과 연막 시대 대비책', 이한수 의원 '태풍피해 도복부 수배 방안', 이용남 의원 '인구 유지를 위한 부안군 대책', 이강세 의원 '코로나19로 인한 쓰레기저장 정책', 오정환 의원 '부안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활성화 방안', 김연식 의원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행사 활성화 방안', 김광수 의원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대책', 김정기 의원 '새만금 2호 방조제 승소 전략' 등을 질의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세계잼버리 홍보 1기 팬클럽 32명 위촉

부안군은 지난 23일 군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제1기 부안 세계잼버리 팬클럽(이하 팬클럽)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팬클럽은 총 32명으로 현재 활동 중인 부안 세계잼버리 서포터즈 19명과 이번에 공개 모집한 13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앞으로 2023년 부안 세계잼버리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팬클럽은 세계잼버리 관련 각종 사업의 진행상황과 함께 관광객들의 세계잼버리 개최지 부안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지, 먹거리 등을 본인의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잼버리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 세계잼버리 붐 조성을 위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하게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미래 10년 큰 그림 그린다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군민 토론회

"노을대교 등 산업 기반시설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의 가치를 공유할 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고창군의 미래 비전을 그리는 군민토론회가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3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고창군청 5층 상황실에서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군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고창에서 수십년째 살고있는 다양한 군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강점과 단점, 앞으로 바라는 정책 방향을 가감없이 이야기 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SOC기반 구축 등에 많은 시간이 할애 됐다. 현재 고창군은 '노을대교(부안-고창)'와 '서해안철도(군산-목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군민들은 끊어진 무장상하 지방도 733호선 개설 등이 중점 건의됐다.

또 고창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도시의 가치를 지역주민 공유할 수 있는 여가에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공동체 환경(외국인노동자, 다문화이주여성, 어르신 귀농귀촌인)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센터 구축 등의 정부 공모사업 대응도 건의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계획의 충분한 검토와 관련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충분히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군민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창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에 담길 예정이다.

용역은 앞으로도 군민토론회와 중간·최종보고회를 추가로 열고 내년 초 마무리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현황과 미래 나아가야 할 바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개선해준 고창을 바탕으로 소통과 율령이 바탕이 된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공무직노조 임금협약 체결

자격실무원 직종 신설 합의 협오 시설근무자 수당 인상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이하 공무직노조)가 '2020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고창군과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전북본부 고창군지부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임금협약 체결식은 전날(22일) 오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고창군수, 최선례 고창군지부장 등 노사 양측 교섭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와 노사대표 인사말씀, 단체협약 서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해 10월10일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심도 있는 실무교섭을 통해 합리

적이고 발전적인 협약을 만들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직무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기 위해 자격실무원 직종을 신설했고 협오 시설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 등을 인상했다.

고창 공무직노조 최선례 지부장은 "고창군의 적극적인 임금협상으로 원만하게 협의가 진행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동반자적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노사 간 견해 차가 크고 쉽지 않은 교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 원만한 합의점을 찾게 된 것에 의미가 크다"며 "조합원들이 어렵고 힘든 노동현장에서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단풍 고춧가루' NS홈쇼핑 판매방송 추진

오늘 오후 5시10분부터 40분간

정읍시가 홈쇼핑 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읍 고춧가루 판매 활성화를 위해 NS홈쇼핑 판매방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은 28일 오후 5시 10분 NS홈쇼핑을 통해 '단풍 고춧가루(1세트 500g×4봉지, 8만1900원·사진)'를 40분간 선보일 예정이다.

단풍 고춧가루는 신태안농협 청결고

춧가루 가공공장에서 15개의 철저한 공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특수 가공에 의한 살균처리로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의 특허기술을 도입해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의 우려가 없다.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인 HACCP 인증을 받은 우수한 제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명품 고추 재배에 최적화된 기온과 일교차로 정읍 고추만의 단내 나는 매운맛과 향이 일품인 제품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시 관계자는 "홈쇼핑을 통한 매출 증대는 곧 지역 농가의 이익이므로 향후 판로 확대 등 지속 성장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화장 김재영 새마을장 권동임 산업장 구성규 애향장 이승호

정읍 시민의 장 '영광의 얼굴들'

문화장 김재영·새마을장 권동임·산업장 구성규·애향장 이승호

정읍시는 지난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정읍시민의 장' 선발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읍시민의 장 4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문화장에 김재영(62), 새마을장에 권동임(70), 산업장에 구성규(80), 애향장에 이승호(76) 씨를 '2020년 정읍시민의 장' 수상자로 선정했다.

정읍시민의 장은 '정읍시민의 장 조례'에 의해 매년 심사 선발해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정읍시 최고 권위의 상이다. 정읍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 봉사한 시민과 출향인 등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지난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29일간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총 5개 부문에서 16명의 후보자가 접수했다.

시는 시민의 장 후보자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해 후보자별 공적 내용에 대한 철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덕망이 높은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1차 부문별 심사와 2차 전원 위원회 심사의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4명의 수상자를 최종 선 발표했다.

문화장 수상자 김재영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은 정읍의 정체성 확립과 동질성 회복 연구를 위해 '내 고창역사의 숨결을 찾아서(1996)' 등 33권의 저서를 출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특히,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 홍보와 위상 정립을 위해 방송 출연 30회 홍보 신문·잡지 80회 기고 학술논문 40편 발표, 유물 750점을 기증하는 등 정읍의 인문학적 토대를 마련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새마을장 수상자 권동임 씨는 새마을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소외계층을 돌봄과 환경정화사업 전개, 나눔 봉사활동 등 지역민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나가며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했다.

산업장 수상자 구성규 (주)두손푸드 대표는 지역 농산물 수매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매출 확대를 제값 받는 농업 선순환 구조를 실현해 나가며 스마트 농식품기업 실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또한 지역 내 소외계층에 활발한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 왔다.

애향장 수상자 이승호 (주)원앤트리 클럽 대표는 고향 발전을 위해 뜻있는 출향인사들을 모아 정읍을 사랑하는 모임을 발족하며 지역 발전과 출향인 화합에 힘쓰고 있다. 특히, 후학 양성과 취약계층 지원, 나라(독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창립 및 독도사랑 고취 운동 등을 통해 정읍인으로서 자긍심을 높여 나간 공로를 인정받았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농축산식품부 '푸드플랜 구축' 공모 선정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1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미래 먹거리 종합계획과 지역 푸드플랜 수립 등으로 안전하고 먹거리 기반 마련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핵심 농정과제인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은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먹거리 종합 전략사업이다.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전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푸드 순환시스템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발전은 물론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시는 이를 위해 2021년 푸드플랜 구축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종합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 현황, 먹거리 거버넌스 구축, 먹거리 통합지원 센터 설립 및 타당성 분석 등 지역단위 먹거리 실행조사를 시행하게 된다.

특히,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사업과 연계해 시민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업인과 관련 업체들은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